

■ 座 談 會 ■

讀 書 生 活 的 習 慣 化

出席者 李 弘 植 (韓國圖書館協會長)
 金 桂 淑 (서울大學校圖書館長)
 白 永 受 (國立中央圖書館長)
 司 會 崔 根 滿 (本協會總務部長)
 記 錄 李 昌 淑 (大韓日報記者)

(本座談會는 65年度(第十一回) 讀書週間을 맞이하여 新聞座談會를 開催한바 있다. 이는 9月21日字「大韓日報」에 掲載되었던 內容이다.)

司會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感謝합니다. 議題는 「讀書生活의 習慣化問題」에 對한 것입니다. 圖書館行政을 맡으신 여러분께서 평소의 所懷를 이 機會에 忌憚없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讀書의 生活化가 왜 要請되는가 하는데 對해서 李先生任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李弘植 사람이 生活하는데 있어 먼저 自己의 教養을 높이고 人格을 쌓는데 指針이 될만한 것에는 무엇보다도 책이 가장 좋은 스승이 되기때문입니다. 책은 人間生活의 核心이되는 思想과 精神을 集中化하고 淨化하도록 하는 努力이 讀書를 通하여 繼續되어야 하겠습니까. 勿論 良書와 惡書의 區別은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이런 문제에 관한것은 나보다도 哲學을 專攻하신 金博士께서 잘 開陣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金桂淑 옛날의 生活이란 衣, 食, 住에만 局限되었읍니다만 人間이 文化生活를 營爲하면서 부터는 거기에만 局限되지 않고, 「知的인 開發」을 무시한 生活이란 생각할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讀書의 生活化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말은 人間에 있어서 生活이란 動物과는 달리 生命體가 環境과 싸운다는 面에만 局限되지않고 무엇인가 精神的인 淨化를 通해서 環境과 싸워 이기는데서 生活을 이룰수가 있고, 그것이 나아가서 文化生活를 누릴수 있다는 點입니다. 그리고 그런 文化生活의 結果의인 所産이 冊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없이 必要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은 우리에게 精神的인 慰安을 줄뿐만 아니라 實生活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教養이나 行動에 있어 生動하는 指標를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白永受 그렇습니다. 우리는 책을 通해서 무엇인가 生活의 科學化를 이루어야겠습니까. 그저 漠然하게 알

고있는 知識이 問題가 아니라 冊을 통한 記錄에서 確實한 知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重要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야만 앞으로의 企劃이나 行動에 自信을 얻을수가 있고, 또한 各自의 生活이 向上되는 것입니다.

金桂淑 아까도 冊은 文化의 總體의인 決算이라는 말을 했지만 우리는 책을 너무 保守的인 面에서 知識의 攝取나 精神의 慰安程度로서 받아들일것이 아니라 새로운 生活을 創造하는 것으로서의 바탕을 삼을줄 알아야만 하겠습니까. 곧 책에 대한 進步的인 選擇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司會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데 있어서 具體的이고 基礎的인 方法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白永受 優先 多讀이 무엇보다도 必要하지 않을까요? 勿論 多讀이 濼讀이 되어서도 안되겠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精讀해야 하겠지만 一般의으로는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할것 같습니다. 그것이 讀書하는 버릇을 培養시키는 結果를 낳기 쉽기 때문입니다. 勿論 一般層과 學生層을 區別해서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學生層에 限해서 單은 指導가 아무래도 必要할것 같아요.

讀書의 計劃化가 자라는 學生들에게는 效果가 있기 때문입니다. 父兄의 讀書 指導가 無視된 한例를 들지요. 집에서 漫畫를 못보게하고 學校工夫만 하게한 아이가 學校에서는 授業時間中에 冊床 밑에서 漫畫책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漫畫에 기갈이든 아이를 나무라기전에 父母의 그아이에 대한 讀書指導가 나뉘었다는 것을 들지 않을수 없읍니다.

金桂淑 그렇습니다. 學生들도 原則的으로 따지자면 國民學校, 中學校, 大學校로 各各 다른 見地에서 細密히 研究해서 指導해야 할것입니다. 어른의 立場에서만

讀書를 無條件 장려한다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러다가는 오히려 讀書에 대한 趣味를 잃게하는 結果를 낳기가 十中八, 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適切한 때에 適切한 讀書을 爲한 適切한 冊」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말의 眞意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讀書하는 분위기를 조용히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도 잊어선 안되겠습니다.

李弘植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電車나 「버스」안에서 新聞이나 雜誌에 限定되지 않고 小形의 冊을 携帶하여 읽을수 있는 雰圍氣가 要求됩니다. 하기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圖書館의 施設조차 滿足하지 못하기는 합니다. 이런 事情은 次々 나아지리라 봅니다.

白永受 勿論 新生國家이니 만큼 滿足할만한 施設이 되어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一般國民이 잘못 認識하고 있다고 보이는點을 이자리에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卽 圖書館하면 「책을 많이 쌓아둔곳」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勿論 책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만 그 책을 自己의 生活에 利用할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圖書館의 施設도 不完全한 點이 많지만 그 不完全한 施設이나 自己의 것으로서 積極的으로 活用할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도 重要하다고 하겠습니다.

司會 그럼 다음에는 外國의 圖書館現況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美國의 圖書館現況에 대해서 白館長任께서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白永受 美國은 圖書館이 世界에서 第一 發達한 나라입니다. 1920년쯤부터 갑자기 圖書館이 많이 불어났죠. 그때 「카네기」가 財政的인 뒷받침을 많이 했답니다. 美國의 公共圖書館 總數는 7,871個所, 이 圖書館에 있는 책수를 人口와 比較해보면 1人當 책한권의 比例가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美國國會圖書館은 世界各國에서 나오는 新刊書籍은 다蒐集하는 計劃을 세우고 이것을 推進中이에요. 圖書館學은 自由世界에서는 完全히 美國이 「리더쉽」을 가지고 있죠.

司會 다음은 日本과 「덴마크」의 公共圖書館에 대해서 金先生任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桂淑 大體로 나온 記錄을 보면 美國과 比較해 差異가 많죠. 勿論 美國이야 워낙 땅덩어리가 큰나라이긴 하지만, 日本의 公共圖書館 總數는 739個所, 人口 1人當 0.2冊의 比例를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比較하면 상당히 發達된 것이지요.

「덴마크」는 모든면에서 上下가 區別없이 잘사는 나라지만 圖書館 施設도 꽤 잘되어 있습니다. 「덴마크」는 1人當 1.5책의 比例를 보여줘 人口比例로 따지면 美國보다 높은 水準을 보여줍니다.

外國의 圖書館現況을 생각하면서 특히 제가 자랑하

고 싶은것은 우리나라의 「마을文庫」입니다. 작은 部落까지 浸透해 들어가고 있는것이 좋은 現狀이라고 봅니다.

大學圖書館의 問題도 美國같은 경우를 보면 부러운 것이 많습니다. 「하버드」大學圖書館에는 7百萬卷의 藏書가 있답니다. 우리나라 大學에서는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의 62萬卷이 第一 많은거죠. 新刊이 좀 不足하지만 藏書의數 뿐만 아니라 圖書館 施設에 관한 것도 重要的 問題의 하나입니다.

司會 外國의 現況을 들추자면 부러운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겠죠. 여러가지면에서 따라가자면 보다 強力한 政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圖書館이 社會教育에 이바지한다는 立場에서 政府가 어떤 政策을 세워주었으면 좋을지 그문제를 말씀해주세요.

白永受 우리나라 政策樹立家들이 政策을 만들어내면 施行錯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 나름으로 그 原因을 하나 생각해 보면 自己知識의 範圍를 넘어서 많은 資料를 圖書館에서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結果라고 생각할수 있지 않을까요. 또하나 圖書館 自體가 施設을 完全히 갖추고 있지 못한 原因이 되고 이것은 비단 圖書館에 限한 問題는 아닙니다만 새로운 것을 創造하는 것이 그리 쉬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結局 남들이 해놓은것을 보고 그스스위에서 마련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이 해놓은것을 모아놓은 圖書館을 利用하는것이 捷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政府는 圖書館이 充分한 資料와 施設을 갖추도록 政策을 세워서 實際的인 뒷 받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李弘植 白館長任이 圖書館의 內容充實과 利用度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外然的인 問題로 지금 圖書館法이 實施되고 있어 各郡 單位로 圖書館을 하나씩 만들게 되어있죠. 그러나 그法條項이 妙해서 義務가 아니고 地方自治團體에 권장하는 形態로 되어있기 때문에 實質的으로 施行이 잘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많은 公共圖書館이 생겨야 一般에게 刺戟을 주어 利用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金桂淑 民主社會를 發展시키려면 모든 國民이 알아야되고 읽을 通해서 各者의 責任도 確固해지겠죠. 普通 圖書館은 冊을두는 建物이라고 認識하고 있는데 學校教育과 社會教育이 連結돼있지 않기 때문이죠. 日常生活에서 뿐만아니라 國家發展이란 見地에서 보면 圖書館은 政策的인面, 學術研究의 面에서 아주 必要한 것이니 保護育成해야됩니다.

司會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感謝합니다. 그럼 이번 座談會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